

포장기술관리사 국가 자격 승격 향상 기대

석영근 / 삼성전자로지텍 경영지원팀 자재물류그룹 대리

“포장기술관리사 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포장협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좋은 성적으로 수료를 하게 되어 무척 기쁘며, 더욱 열심히 포장관련 공부를 하라는 의미로 받고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진행하다보니,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기도 했다고 토로하면서 포장이란 학문에 사용되는 용어가 생소하여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석영근 대리는 포장기술관리사 제도가 지속적인 홍보와 많은

지난 달 3일 키콕스베처센터에서 열린 제4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에서 삼성전자로지텍 석영근 대리가 1백23명 가운데, 2등으로 수료, 우수성적자로 수상했다.

95년도에 삼성전자에 입사한 석영근 대리는 입사 후 서비스자재 전산 오퍼레이터(Operator)로 일하던 중 1999년 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로지텍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포장재 구매 및 개발업무를 맡고 있다.

포장재 구매 및 개발업무이다 보니, 포장재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통해 업무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응하게 됐다는 그는 교재를 보면서 학습하고 매 주별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한주간의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11주간 통신교육을 받았다.

석영근 대리는 회사업무와 통신교육을 함께

포장기술관리사 배출을 통해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자격증 및 APF(Asian Packaging Federation : 아시아포장연합회)의 인증으로 승격되어 국제적인 자격증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그는 좀 더 포장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는 한편, 향후 향후 포장기술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을 전했다.

포장산업 종사자 모두가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포장산업은 발전할 것이라는 석영근 대리.

친환경 포장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그는 국가 포장산업에 조금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 ☐

박초혜 기자